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파편화된 신체 이미지 연구

최 유 진

영남대학교 섬유패션학부 강사

A Study of Body-in-Pieces Images in Fashion Design

Yoojin, Choi

Instructor, School of Textiles, Yeungnam University

(투고일: 2009. 7. 14, 심사(수정)일: 2009. 10. 26, 게재확정일: 2009. 11. 2)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the meanings of the images of the body-in-pieces in fashion design. This study focusing on the body-in-pieces based theoretically in that, and started to figure out the meanings in western art history. Body-in-pieces images were brought in art to express symbolic meanings to destroy the past, sexual fetish, unconsciousness, desire, fantasy, and to disorganize male-subjective idealistic female image. While in fashion design, body-in-pieces images categorized in three, erotic image, cyborg image, abjection image. First, erotic images in fashion design are fragmented body image, such like lip, hair, eye and etc. Second, cyborg image was represented by 3-dimentional molding image made of metallic materials. and last, abjection image representing death image used skeleton and bone image induced uncanny and sadistic feelings. Body-in-pieces images in fashion design are related to fetishism, uncanny, disorganizing traditional femininity.

Key words: body-in-pieces(파편화된 신체), fashion design(패션 디자인), 페티시(fetish), uncanny(언캐니), abjection(에브젝션)

I. 서론

최근 미술 분야의 화두로 떠오르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신체에 관한 논의이다. 현대 예술작품 속에 나타나는 신체는 우리에게 익숙한 신체 이미지보다는 변형되거나 잘려지거나 또는 다른 것과 조합되어진 기괴한 형상들로 다소 불편한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의 패션 디자인에서도 이러한 예술 분야와 병행하여 여성의 이상적인 인체미가 재현되기 보다는 여성의 신체 이미지를 파편화하거나 왜곡, 해체한 디자인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의 신체가 완전성을 추구했다면 현재의 신체는 불완전함을 드러내며 그러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신체미술에 나타난 신체는 우리의 시각체계를 교란시키는 파편화되고 기괴한 영상을 띠었다. 이러한 신체 작업들은 보이지 않던 신체의 실체를 파헤쳐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익숙했던 신체를 보는 방식이 허구였음을 알게 해 주었다.

현대 패션 디자인에 나타나는 신체 표현 역시 신체 예술을 둘러싼 담론과 마찬가지로 과거와 현재가 분명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의 신체가 이상적으로 재현되어야 할 미적 대상의 극치였다면, 현재의 신체는 세상과 교류하는 하나의 장으로 다루어지며 변형, 왜곡, 또는 파편화되고 있다¹⁾.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신체 이미지 중에서 패션 디자인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파편화된 신체(body-in-pieces) 이미지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신체 이미지를 연구한 성과로는 권기영²⁾이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의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신체 표현을 표현방법, 이미지, 디자인 요소, 조형적 특성으로 나누어 포괄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김은희³⁾는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몸 이미지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또한 윤영, 양숙희⁴⁾의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잔혹성의 이미지의 일부로 이러한 파편화된 신체를 연구하고 있다. 그리고 차은진, 박미령⁵⁾의 연구에서는 줄리아 크레스테바 에브젝션에 관한 이론을 도입하여 혐오스러운 이미지와 친근감을 동시에 부여하는 에브젝션의 속성을 가진 의상 표현에 관해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패션에 나타난 신체 이미지를 역사적인 흐름과 예술 분야와 접목시킨 연구로서 중요한 선행연구이나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파편화된 신체 이미지에 관해서는 조금씩 언급하는 데 그치고 있다. 때문에 본 연구는 신체 담론 중에서 파편화된 신체 이미지를 중심으로 이론적 개념과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패션 디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시각 예술에서 파편화된 신체 이미지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났는지를 고찰하여 특성을 유출했으며 현대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여성의 파편화된 신체 이미지의 표현과 특성을 연구함에 있어 분석 틀로 삼았다.

본 연구는 서양 예술에서 나타난 파편화된 신체 이미지에 관한 문헌 연구를 토대로 한 이론적 연구와 현대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파편화된 신체를 분석하는 실증적인 연구로 이루어진다. 이론적 연구에서는 파편화된 신체 이미지가 가지는 의미를 린다 노클린의 연구서 「절단된 신체와 모더니티」⁶⁾와 신체 담론을 고찰한 선행 연구 등을 중심으로 분석·고찰하였으며, 실증적 연구에서는 패션 컬렉션에서 수집한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표현 특성과 의미를 질적으로 도출했다. 또한 실증적인 연구로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발표된 패션 디자인을 선정하여 분석, 고찰하였다.

II. 파편화된 신체 표현의 역사

1. 마네와 인상주의

20세기 들어와 미술이 반드시 자연의 모방일 필요가 없다는 인식의 보급으로 인체를 소재로 한 구상 미술이 쇠퇴하면서 시각적 재현을 중시하던 신체 표현은 감소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환기에 제작된 에두아르 마네(1832-1883)의 「올랭피아」는 고전 미학의 붕괴와 함께 변화된 신체관과 회화관을 가능할 수 있게 해 주는 중요한 작품이다. 이상적인 신체의 모델을 찾기 위해 신체의 비례와 명암의 구조를 연구했던 고전적인 방식 대신 역동적인 살아있는 신체,

만인 공통의 신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환경 속의 신체, 순간에 따라 변화하는 신체, 미의 규칙에 저항하는 신체가 탄생하였다. 마네의 올랭피아는 신체의 재현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의 해석임과 동시에 가능성을 예고한다고 할 수 있다. 마네와 인상주의자들은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는 일시적이고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신체를 표현했다⁷⁾. 이러한 움직임은 친숙한 신체 대신에 해체되어 조각난 신체, 언제 어떻게 드러날지 모르는 파편화된 신체가 탄생하는 전조가 되었다.

마네는 의도적으로 파편화된 신체의 이미지를 회화에 도입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오페라의 가장 무도회」(그림 1)⁸⁾에서 근대성의 표현과 양식으로서의 모더니즘의 구축과 관련하여 파편화된 인물, 절단되고 잘려나간 구성에 따른 복합적인 내용과 모순적인 의미들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는 이 작품에서 세상 물정에 밝은 파리 군중들, 도미노 가면을 쓴 사람들과 몸을 파는 창녀뿐만 아니라 왼쪽으로 반쯤 잘려나간 광대, 위쪽으로는 발코니에 걸려있는 여자의 흉상과 다리 그리고 허리띠를 표현하고 있다⁹⁾. 철학자이며 시인인 스테판 말라르메(1842-1898)의 지적대로 마네는 이 작품을 통하여 그림을 자르는 새로운 방식을 발견한 것이다¹⁰⁾.

페미니스트 미술 사학자인 린다 노클린은 그녀의 저서 「절단된 신체와 모더니티」에서 마네의 「오페라의 가장 무도회」에 나타난 절단된 신체 이미지의 의미를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화면에서의 파편화된 신체는 우연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며

의도적인 것일 수도 있으며 또한 유희를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덧붙여 무엇보다도 마네가 그린 가장 무도회에서 보이는 파편화된 인체는 페티시이며, 이러한 표현은 신체의 부분적 이미지를 통해 전체를 나타내는 채유법으로 제시되었다고 지적했다¹¹⁾. 노클린의 주장과 같이, 잘려진 여성의 다리 이미지는 그림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여자의 성적인 매력을 대변하며 나아가 그림의 경계선 너머로 실제로 존재하는 성욕을 자극하는 여자의 몸을 살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에드가 드가(1834-1917) 또한 대도시의 유희가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 절단하는 구성, 가장자리 자르기, 그리고 파편화된 인물을 이용했다. 빈센트 반 고흐(1853-1890)는 자신의 귀를 잘라 창녀에게 주고 1889년에 「귀를 봉대에 감은 자화상」을 그렸다. 고흐는 자신의 몸을 통해 직접 신체의 단편을 경험했으며 그 것을 예술 작품으로 표현한 화가이다. 조르주 바타유가 지적한 바와 같이 예술가에게 있어 신체의 절단은 일종의 예술 제작을 위한 전제조건일 수도 있을 것이다¹²⁾.

모더니즘 화가들의 작품에 나타난 페티시의 속성으로서의 여성 인체 표현이 패션과 관련된 이미지에서도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패션 디자인 분석에 앞서 광고 이미지에서도 그 예를 살펴 보았는데, 2003년 9월호에 게재된 Yves Saint Laurent의 패션 광고 이미지(그림 2)와 같이 파편화된 모델의 신체가 제시되어 있는 예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광고 이미지는 전체적인 모델의 신체가



〈그림 1〉 오페라의 가장 무도회, 절단된 신체와 모더니티, 2001, p. 54.



〈그림 2〉 Yves Saint Laurent 광고 사진, Vogue, Italy, 2003년 9월호, No.637, pp. 32-33.

화면에서 구성될 때 이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유발시키며 동시에 페티시적인 속성을 부여하고 있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현대 패션 광고에는 모더니즘 화가들이 화면에 표현한 페티시의 속성으로서의 여성의 신체가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초현실주의

초현실주의자들은 인체를 단순히 지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외형에 치중하지 않고 내부에 잠재된 정신이나 꿈에 의한 상태를 표출시킨 감각에 충실하여 표현하였으며 관람자와의 관련성까지 포함한 확대된 인체 개념을 제시하였다¹³⁾. 초현실주의의 표현에서 무엇보다도 강조된 요소는 인체의 표현과 해석이다. 심리학적 통찰력에 의해 원래의 고유 형태가 부정되어 나타난 인체의 해석은 초기의 심리 및 문학과와의 관련성을 초월하여 초현실주의의 대전제로 남게 되었다¹⁴⁾. 그 중에서도 특히 초현실주의자들은 노골적으로 기계인간과 인형, 마네킹의 몸 위에 섹슈얼리티와 고통의 이미지를 부여함으로써 이성과 신문명에 대한 기대 대신 욕망과 무의식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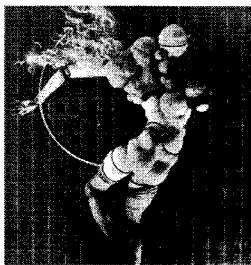
초현실주의적 표현의 대표적인 작가인 한스 벨머(1902-1975)의 작품에는 파편화된 여성의 신체 표현이 인형이라는 매개체로 표현되고 있다. 벨머의 작품 <그림 3>¹⁵⁾에 나타나는 유사인간 이미지로서의 인형은 단순히 인간의 모조물이 아니라 창조 행위나 파괴적인 충동을 동시에 투영하는 효과적인 매개체임과

동시에 욕망과 환상을 담는 수단이 되었다. 서세나¹⁶⁾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벨머의 신체 표현에 나타난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를 흐리는 인형의 혼성적인 존재감은 강한 심리적 효과를 창출했으며 이러한 시도는 더욱 과감하고 다양한 파편화되고 재구성된 신체 표현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일련의 작품에서 벨머는 절단된 인형을 끄적한 형태로 재조합한 여성 사진을 제작하고 있는데, 같은 초현실주의 화가로 분류되는 막스 에른스트(1891-1976) 또한 「백 개의 머리를 가진 여자」라는 작품에서 파편화된 신체를 콜라주 기법으로 조각조각 연결하여 표현하고 있다.

현대 패션 광고에서도 이러한 인형 이미지를 도입한 예가 적지 않은데, 예를 들면 이탈리아 Vogue지에 게재된 Dsquared²의 광고 이미지 <그림 4>에는 마네킹이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유사 인간 이미지인 마네킹의 혼성적인 존재감은 실제의 인체 표현보다 보는 이에게 보다 더 강한 심리적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3.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페미니즘 미술가들은 완전하고 이상적인 여성의 몸이라는 스테레오 타입의 여성상을 거부해 왔다. 이들은 사회, 문화, 경제, 정치, 역사적인 구조 속에서 모든 인간의 생활에 내재된 남성우월주의, 가부장제의 부당성을 파헤치고, 여성의 위치를 재정립하여 잃어버린 주체성을 찾으려는 페미니즘 사상에 근거하여 보다 새로우며 창조적인 여성상을 창출하고자 하



<그림 3> 인형, 욕망, 죽음
그리고 아름다움,
2005, p. 160.



<그림 4> Dsquared2의 광고 사진,
Vogue, Italy, 2008년 2월호,
No.690, p. 137.

었다¹⁷⁾.

페미니즘은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확고한 이념으로 자리잡게 되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포스트모더니즘과의 제휴가 있었다. 이분법적이고 이성 중심적인 담론을 의심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논의들이 가부장제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페미니스트의 신념과 일치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두 가부장제를 비판하고 남성 중심적인 시선과 타자가 여성으로 대변되는 현재의 재현 문화에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듯 포스트모더니즘과 페미니즘의 제휴는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이라는 새로운 사고를 창출했으며 사회의 구조를 검증하고 해체하는 활동으로서 다양한 문화 활동의 방면에 페미니즘을 전파시켰다¹⁸⁾.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의 사상가로는 뤼스 이리가라이,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있으며 이들은 시몬 드 보부아르(1908-1986)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타자성에 초점을 두었고 데리다와 같이 작가 의식과 정체성 및 자아 의식이라는 평범한 개념들을 공격했다. 또한 푸코의 논의와도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에 있어 전통적으로 규정되어온 성의 영역에 의문을 제기하고 성이 어떻게 권력 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지 분석하고 있다¹⁹⁾.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로 간주되는 대표적인 아티스트인 루이스 부르주아(1911-2002)는 파편화된 신체를 퀘매어 표현하고 있으며, 이 불(1964-)은

썩어가는 화려한 장식의 생선, 히드라나 몬스터처럼 이상적이지도 않고 절제되지 않은 그로테스크한 몸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²⁰⁾. 신디 셔먼(1954-)은 시각적으로 혐오감을 주는 강렬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작품 <그림 5>²¹⁾에서 여성의 에로틱한 내용을 전적으로 배제한 파편화된 신체 이미지를 조합하여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작가들의 괴물과도 같은 유동적인 여성의 몸 표현은 남성 중심적인 사고를 해체하고 있으며 새로우면서도 기존과 다른 독특한 형태를 띤다.

한편, 다너 해러웨이(Donna Haraway)는 사이보그 선언(A Manifesto for Cyborgs)을 통해 여신이 되기보다 사이보그가 되겠다고 선언하면서²²⁾ 사이보그를 새로운 여성적인 주체로 내세우며 포스트모더니즘 시기에 해방적인 여성의 존재 양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몸과 그것에 바당하는 온전한 정체성 대신 인간과 기계, 기계와 유기체가 결합하는 현상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말이었으며²³⁾, 전통적이며 주변적인 여성상이 아닌 주체적인 강한 여성상을 제시한다는 말이었다. 이러한 기계적인 요소를 도입한 강한 여성 신체는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신체상 중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신체 미술 뿐만 아니라 현대의 패션 광고에서도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적인 여성의 몸 이미지가 표현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림 6>의 Blumarine의 광고에서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을 이용하여 거울에 비



<그림 5> 무제 250, 파편화된 신체와 모더니티, 2001, p. 84.



<그림 6>
Blumarine의 광고 사진 중 일부, Vogue, Italy, 2008년 2월호, No.690, p. 31.

〈표 1〉 파편화된 신체 이미지의 표현과 특성

분류	인체와 관련된 표현	특성
마네와 인상주의	· 신체의 일부를 화면에 제시 · 기계 인간과 인형, 마네킹	· 성적 페티시
초현실주의	· 절단된 인체의 재조합 · 절단된 인형 · 파편화된 신체를 연결	· 무의식, 욕망과 환상을 담는 수단 · 강한 심리적 효과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 괴물과도 같은 유동적인 여성의 몸 이미지 · 사이보그	· 남성 중심적인 이상적인 여성미의 해체 · 혐오감

쳐 증식된 인체를 표현하고 있다. 마치 괴물과도 같은 유동적인 몸 이미지로 표현된 본 광고 이미지는 기존의 이상적인 여성의 신체 이미지가 아닌 왜곡되고 변형된 이미지를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여성의 신체 이미지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시각 예술에 나타난 파편화된 신체 이미지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Ⅲ.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파편화된 신체 이미지의 표현

패션 아이템들이 신체의 각 부분을 덮고 있는 만큼 각각의 파트는 결국 파편화된 신체 이미지의 일부로서 볼 수 있을 것이나 신체의 재현이나 혹은 탈재현으로서의 패션에 대한 논의는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적 담론에서 수차례 논의되어 온 바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유기적인 신체 이미지가 아니라 단절된, 즉 파편화된 신체 이미지를 중심으로 패션과 관련시켜 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파편화된 신체를 표현 방법에 따라 신체의 일부분을 평면적으로나 입체적으로 표현해 페티시적인 속성을 지니는 에로틱한 신체, 기계적인 이미지를 물딩된 신체로 표현한 사이보그적 신체, 마지막으로 해골로 대표되는 죽음 연상하는 혹은, 보는 이에게 그로테스크한 감정을 가지게 하는 애브제션의 신체라고 하는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디자인의 표현 양상을 고찰하였다.

1. 에로틱한 신체

〈그림 7〉의 Pascal Humbert의 작품은 여성의 손 모양을 티셔츠에 평면적으로 덧대어 블랙과 화이트로 대조되는 색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림 8〉의 Vivienne Westwood Gold Label의 디자인에서는 사실적인 입술 모티프가 의상에 프린트로 도입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실적 표현은 에로틱한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 05 S/S 컬렉션에서 선보인 Christian Dior의 〈그림 9〉의 디자인에는 주먹 모티프가 팝아트적인 표현으로 도입되어 있다.

〈그림 10〉의 Christian Dior의 작품에는 왜곡된 여성의 인체 모티프가 프린트로 도입되어 있으며, 〈그림 11〉에는 눈 모양의 모티프가 의상에 프린트되어 있다. 캐릭터화된 눈 모티프가 의상에 표현되었을 경우에는 보는 이에게 유우머의 감정을 부여하지만 사실적인 형태의 눈 모티프는 그로테스크한 느낌과 함께 에로틱한 감정을 부여한다.

01/02 F/W Prada의 디자인 〈그림 12〉에서는 무수히 작은 입술모양의 모티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02 S/S 컬렉션에 발표된 Bernhard Wilhelm의 디자인 〈그림 13〉에서는 눈과 입 모양의 형상이 각각 의상의 아이템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그림 14〉에서 Alexander McQueen은 머리카락을 드레스의 디테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파편화된 신체를 도입한 패션은 신체의 일부를 모티프로 하는 특성상 보는 이에게 에로틱한 감정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림 7> Pascal Humbert, 02 S/S, Paris.



<그림 8> Vivienne Westwood Gold Label, 05 S/S, London.



<그림 9> Christian Dior, 05 S/S, Paris.



<그림 10> Christian Dior, 05 S/S, Paris.



<그림 11> Issey Miyake by Naoki Takizawa, 05 S/S, Paris.



<그림 12> Prada, 01/02 F/W, Milan.



<그림 13> Bernhard Willhelm, 02 S/S, Paris.



<그림 14> Alexander McQueen, 07 F/W, Pa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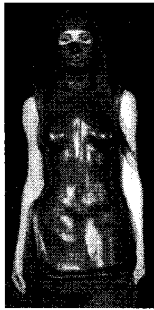
2. 사이보그적 신체

패션에서의 파편화된 신체 이미지의 예는 신체를 몰딩한 디자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패션 컬렉션에는 금속성의 재질을 이용하여 몰딩한 인체 표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는 몰딩된 신체 표현 중에서도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금속성 소재를 이용한 표현 이미지를 사이보그적 신체 표현으로 분류하였다. 그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07 F/W 컬렉션에 발표된 Alexander McQueen의 작품 <그림 15>에는 고대 전사와 같은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뷔스티에가 표현되어 있다. 이 의상은 여성의 인체를 주물화한 이미지이지만 금속과 같은 소재

로 만듦으로써 여성적인 속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신체 보호적인 의상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같은 디자이너는 05 S/S 컬렉션에서도 유사한 디자인 <그림 16>을 발표하고 있는데 인체를 형상화하여 구조한 과장된 의상을 제안하고 있다.

07 S/S 컬렉션에서 발표된 <그림 17>의 Balenciaga의 디자인에는 다리 부분에 금속으로 만든 의상 파트가 고안되어 있는데 이는 로봇이나 사이보그의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그림 18>의 Pedro Lourenco의 디자인에서는 다리 부분의 금속적인 조형으로 인하여 인공적인 여성미를 표현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새의 모양을 형상화한 느낌을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19>의 Alexander McQueen의 디자인은 인체 전체를 금속성의 소재로 감싸고 있으며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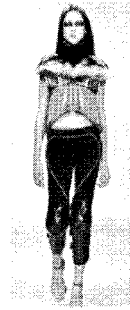
〈그림 15〉
Alexander
McQueen, 07
F/W, Paris.



〈그림 16〉
Alexander
McQueen, 05 S/S,
Paris.



〈그림 17〉
Balenciaga,
07 S/S,
Paris.



〈그림 18〉 Pedro
Lourenco, 09 S/S,
Sao Paulo.



〈그림 19〉
Alexander
McQueen, 07
F/W, Paris.

디스 부분은 몰딩하여 여성의 신체의 선을 주도하여 표현하고 있다.

3. 애브젝션(abjection)의 신체

패션 디자인에 나타나는 파편화된 신체 표현은 앞서 살펴본 에로틱한 신체와 사이보그적 신체 표현 이외에도 머리카락이나 신체의 배설물 같은 혐오스런 소재를 도입하거나, 생명을 상실한 해골이나 뼈의 모티프를 도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표현을 본 연구에서는 애브젝션의 신체로 분류하였다.

먼저 여기서 애브젝션의 용어를 설명하면, 애브젝션이란 라틴어의 abjectio에서 유래된 용어로서 공간적 간격, 분리, 제거를 의미하는 접두사 ab와 내던져 버려진 행위를 나타내는 jectio로 구성된 단어이다. 또한 애브젝션의 사전적 의미는 영락, 비천, 비열, 비굴을 뜻하며 프랑스어로는 아브제시옹이라고 읽혀지고 비열, 타락, 포기 등의 뜻을 갖고 있다²⁴⁾. 페미니스트인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억압되어온 죄, 오염, 더러움, 근친상간, 도착증, 질병에 걸린 육체 등 혐오와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개념들을 설명하기 위해 애브젝션이라는 용어를 도입했다²⁵⁾. 윤영, 양숙희(2004)의 연구에서는 애브젝션을 공포가 가져다 주는 매혹적인 위력이며, 정체성, 제도, 질서를 깨뜨리는 중간적이고 모호하고 혼성적인 것을 지칭하며, 모호하고 혼성적인 성격으로 인해 질서와 정체성, 경계,

체계를 교란시키는 어떤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²⁶⁾.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애브젝션의 신체 표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0〉의 Maison Martin Margiela의 작품에서는 인조 머리카락을 의상에 표현하고 있다. 연출을 위해 착용하고 있는 모델의 가발로 가려진 얼굴은 보는 이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며 동시에 그로테스크한 느낌을 부여한다. 이러한 헤어를 이용한 패션 표현을 애브젝션의 신체 표현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헤어는 끊임없이 재생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버려지는 것, 즉 미천한 것이기 때문이다.

05 S/S 컬렉션에 발표된 Under Cover의 작품 〈그림 21〉에서는 신체의 장기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어 원래 있어야 할 장소에서 이탈하면서 생명을 상실했음 즉 죽음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05 S/S에 발표된 〈그림 22〉의 Sonia Rykiel의 디자인과 08 S/S에 발표된 〈그림 23〉의 Clare Tough의 디자인에서는 해골의 이미지가 의상의 모티브로 도입되고 있다. Castelbajac의 작품 〈그림 24〉에는 해골뿐만 아니라 뼈 모티프가 동시에 나타나며 장갑에도 뼈 모양의 장식이 덧대어져 있다. 〈그림 25〉의 05 S/S 컬렉션에 발표한 Vivienne Westwood Gold Label의 디자인에서도 인간의 사후 모습의 하나인 뼈의 이미지가 셔츠의 프린트로 도입되어 있다. Under Cover의 05-06 F/W 컬렉션의 디자인 〈그림 26〉에서는 무수히 많은 해골이 재킷의 텍스처를 구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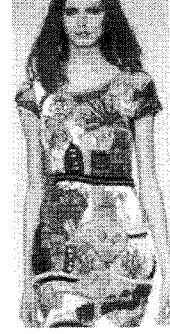
〈그림 20〉
Maison Martin
Margiela, 09 S/S,
Paris.



〈그림 21〉
Under Cover,
05 S/S, Paris.



〈그림 22〉
Sonia Rykiel
05 S/S, Pa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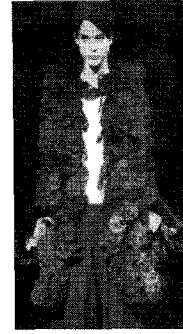
〈그림 23〉
Clare Tough, 08
S/S, London.



〈그림 24〉
Casteljacob,
01/02 FW, Paris.



〈그림 25〉
Vivienne Westwood
Gold Label, 05 S/S,
Paris.



〈그림 26〉
Under Cover,
05-06 F/W, Paris.

IV.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파편화된 신체 이미지의 의미

본 연구의 전반부에서는 미술사의 흐름 속에서 파편화된 신체 이미지가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실제적으로 패션 디자인에서 파편화된 신체 이미지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지에 관해 사례 분석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파편화된 신체 이미지를 표현 내용에 따라 신체의 일부분을 평면적으로나 입체적으로 표현해 페티시적인 속성을 지니는 에로틱한 신체, 기계적인 이미지를 물딩된 신체로 표현한 사이보그적 신체, 마지막으로 해골로 대표되는

그로테스크한 감정을 가지게 하는 애브젝션의 속성을 지닌 신체 표현이라는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디자인의 표현 양상을 고찰하였다.

여기에서는 패션에 나타난 파편화된 신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앞서 언급한 미술에서 파편화된 신체가 가지는 의미와 관련시켜 페티시즘, 이상적인 여성미의 해체, 언캐니라는 카테고리 그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1. 페티시즘

파편화된 신체 표현은 일차적으로 페티시즘적인 요소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체의 대리물로

서 파편화된 신체 조형은 에로틱한 감정을 유발한다. 입술모양이나 성기와 같은 직접적으로 에로스를 상징하는 부위가 아니더라도 신체의 각 부위는 관찰자에게 에로틱한 감정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디자인 중에서는 <그림 8>에서 보여지는 실제적인 입술 모티프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파편화되고 사실적인 인체 표현은 실제적으로 보는 사람에게 에로틱한 감정을 부여하며 동시에 페티시적인 속성을 내재하고 있다.

또한 <그림 15>, <그림 16>, <그림 19>에 나타난 브레스트를 몰딩한 표현 기법은 낯설고 이질적인 소재로 인하여 실제적인 느낌보다는 인공적인 이미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여성의 인체를 마네킹과 같이 소유할 수 있는, 대체 가능한 주물로 변환시킴으로써 페티시적인 사물로 대체시킨다.

또한 <그림 21>에서부터 <그림 26>까지의 디자인에 나타난 죽음의 표현 또한 페티시즘적인 감정과 관계가 있다. 조르주 바타이유는 인간 인식의 발전 단계에 비추어 죽음의 인식이 에로티시즘 인식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인간은 죽음에 대한 욕망, 특히 성의 환상 속에서 죽음을 직시하고 나아가 죽음에 한 발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충동을 가지고 있다²⁷⁾. 인간의 신체의 파편을 패션에 도입한 디자인은 이렇듯 페티시즘의 감정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이상적인 신체미의 해체

본 연구에서는 금속성의 소재를 사용하여 인체를 몰딩한 표현을 사이보그적 표현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러한 패션 디자인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여성미에 대한 도전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몰딩된 인체로 표현된 유사 인간 이미지는 인간의 신체를 재현하고는 있지만 사실적인 신체 재현 이미지와는 달리 금속 소재나 사이버적인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여성성을 상실한 사이보그의 인체를 나타낸다.

앞서 언급한 해러웨이가 주장한 사이보그는 가부장제의 역사에서 괴물적인 것으로 억압당한 여성의 힘, 권력, 주술과 의술을 현대의 테크노 과학으로 무장한 것이다. 사이보그는 온전한 육체 개념을 허물고

인간과 동물, 인간과 기계, 인간과 유기체의 이분법을 해체한 비존재의 산물이며, 기계와 육체가 결합한 유전자 복제술로 탄생한 이질적인 것의 혼종이다²⁸⁾. 김현수, 양숙희(2003)²⁹⁾는 디지털 기술과 패션의 융합된 스타일을 사이버 페미니즘 패션으로 명명하고 인공과 가상을 미적특성으로 하며, 몸에 첨단기계를 부착한 보철물 형상을 신체관으로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분류한 사이보그 패션 또한 같은 맥락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패션에 나타난 사이보그적 인체 표현은 기존의 연약하고 수동적인 전통적인 여성다움을 나타내는 인체가 아니라, 강하고 해방된 여성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라는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그림 15>에서부터 <그림 19>까지의 작품에서 보이는 금속적인 소재를 사용한 몰딩된 신체 이미지의 표현은 사이보그적 여성상을 형성하는 주요한 요소이며 이로 인해 기존의 연약하고 수동적인 여성이 아닌 강한 여성상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3. 언캐니(uncanny)

현대의 신체는 깨끗한 부르주아의 신체,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고전적인 개념의 신체를 표현하는 추상적인 매개체가 아니라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교미하는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³⁰⁾. 완벽한 인체가 아닌 무언가 결여된 이미지의 파편화된 신체는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하여 익숙하지만 그 공포적인 외양으로 인해 낯선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데 신체 담론에서는 이를 언캐니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조현실주의 작품에서 표현된 신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키워드인 언캐니는 '엄청난, 무시무시해서 기분 나쁜, 괴기한, 신비스러운'의 의미로 정의된다. 이러한 언캐니의 속성에 관해서 할 포스터(2005)는 실재와 상상을 구분하지 않는 것, 밀랍 인물상, 인형, 마네킹, 자동 인형 등과 같은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것, 기호가 지시 대상의 지위를 빼앗는 것, 또는 심리적 실재가 물리적 실재의 자리를 뺏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³¹⁾.

언캐니에 관해서는 이미 프로이트가 1919년에 〈언캐니〉라는 저서에서 공포와 관계되며 공포를 유발하는 무서운 특수 느낌의 성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언캐니는 익숙치 않은 것과 그에 따른 불안, 음울, 실망, 억압을 의미한다. 또한 프로이트는 익숙하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오랫동안 친숙한 것으로 알고 지냈던 것에 대해서도 인간은 언캐니한 공포를 느낀다고 강조하였다³²⁾. 신체 자체나 신체의 배설물 등으로 나타나는 파편화된 신체 이미지는 관찰자로 하여금 역겨운 감정과 동시에 친밀한 감정을 가지게 하는데³³⁾, 이러한 감정은 바로 프로이트가 정의한 언캐니와 관계가 있다.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파편화된 신체 이미지 표현은 이러한 언캐니한 감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림 11〉의 의상에서는 사실적이며 친숙한 눈 모양의 의외적인 위치에 프린트로 도입되어 있어 보는 이에겐 언캐니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살펴본 〈그림 20〉의 경우는 신체의 일부인 헤어를 패션 디자인에 도입한 경우인데 인공적인 소재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과다한 양의 배치로 인해 언캐니함을 유발한다.

이 외에도, 사이보그 개념을 도입한 패션은 기계 문명에 대한 인간의 이율 배반적인 욕망으로 섬뜩한 공포를 야기하는 언캐니를 유발한다. 김현수, 양숙희(2003)³⁴⁾의 지적대로 사이보그의 반인반수에 나타난 비천함은 정체를 왜곡하여 기괴한 것에 대한 공포를 가시화하여 언캐니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림 21〉에서부터 〈그림 26〉은 죽음의 이미지를 나타낸 것으로 이러한 이미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페티시즘의 표현임과 동시에 언캐니한 속성을 내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분석한 패션 디자인에 표현된 파편화된 신체 이미지를 정리하면 다음에 제시하는 〈표 2〉와 같다.

V. 결론

신체 미술에서의 파편화된 신체는 예술가들의 신체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패션 디자인들에 있어서도 파편화된 신체는 디자이너들이 동시대의 신체를 둘러싼 담론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하는 인식을 보여준다. 과거의 디자이너들이 이상적인 비례를 가진 여성의 인체를 강조하거나 남성 중심의 시각으로 여성의 신체를 바라보았다면, 현재의 디자이너들은 기존의 이상적인 여성미를 해체시키고 파편화시킨 양상을 표현한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신체 이미지 중에서 파편화된 신체 이미지에 주목하여, 서양 미술의 흐름 속에서 파편화된 신체 표현의 역사와 의미를 고찰하였으며 본 연구의 이론적 근거로 삼았다. 이에 따르면 파편화된 신체 표현은 성적 페티시, 무의식, 욕망, 환상을 담는 수단, 그리고 남성 중심적인 이상적인 여성미를 해체하는 수단이 되었다.

한편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 파편화된 신체 이미지는 표현 내용을 분석하여 에로틱한 신체, 사이보그적 신체, 애브젝션의 신체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그 각각을 살펴 보면, 먼저 에로틱한 신체 이미지와 관련된 패션 디자인으로는 손, 입술, 머리카락, 눈과 같은 신체 부분이 입체적인 장식이나 프린트로 단순, 반복, 복합적으로 도입하는 경우였다. 두 번째로는 사이보그적 신체 표현은, 파편화된 신체를 금속적이고 사이버적인 소재로 몰딩하여 표현한 패션 디자인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표 2〉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파편화된 신체 이미지의 표현과 특성

신체 표현	패션 디자인	의미
에로틱한 신체	· 손, 입술, 머리카락, 눈과 같은 신체 부분이 입체적인 장식이나 프린트로 단순, 반복, 복합적 표현으로 도입	페티시즘
사이보그적 신체	· 신체 부위를 사이버적인 소재로 몰딩 기법으로 표현	이상적인 여성미의 해체
애브젝션의 신체	· 해골과 뼈와 같은 인간의 사후 모습을 도입	언캐니

에브젝션의 신체는 인간의 헤어나 신체의 분비물과 같이 버려지는 미친한 것을 패션에 도입하는 경우와 해골과 뼈와 같은 인간의 사후 모습을 패션에 도입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디자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나타난 파편화된 신체 표현의 의미를 본 연구에서는 페티시즘, 언캐니, 이상적인 여성미의 해체라는 카테고리로 해석하였다. 입술모양이나 성기와 같은 직접적으로 에로스를 상징하는 부위가 아니라더라도 신체의 각 부위는 관찰자에게 에로틱한 감정을 불러 일으키며 패션에 나타난 주물화된 에로틱한 요소는 페티시즘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금속소재로 입체적으로 물당한 인체 표현으로 대표되는 사이버그적인 신체 표현은 전통적인 여성이미지와는 다른 강하고 도전적인 여성미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파편화된 신체 표현은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하여 익숙하지만 그 공포적인 외양으로 인해 낮은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끔 하는 언캐니한 감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참고문헌

- 1) 조현익 (2007). *여성의 이미지와 물성을 통한 욕망의 매커니즘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24-25.
- 2) 권기영 (2000).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신체의 의미와 표현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 김은희 (2002). *복식에 표현된 여성의 몸 이미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 윤영, 양숙희 (2004). *현대 패션에 나타난 잔혹성 이미지-크레스테바 이론을 중심으로*. *복식*, 54(1), pp. 83-95.
- 5) 차은진, 박미령 (2002). *에브젝트로 표현된 의상*. *복식*, 52(2), pp. 19-30
- 6) Linda Nochlin (1994). *The Body in Pieces: the Fragment as a Metaphor of Modernity*. London: Thames & Hudson Ltd. 정연심 역 (2001). *절단된 신체와 모더니티*. 조형교육.
- 7) 한림미술관, 이대기호학연구소 (1999). *몸과 미술-새로운 미술사의 시각*.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 11.
- 8) 정연심 역 (2001). *앞의 책*, p. 54.
- 9) *위의 책*, pp. 53-55.
- 10) *위의 책*, p. 55.
- 11) *위의 책*, pp. 56-57.
- 12) 허지숙 (2003). *신디 셔먼(Cindy Sherman)작품에 나타난 파편화된 신체이미지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 석사학위논문. p. 14.
- 13) *위의 책*, p. 51.
- 14) *위의 책*, p. 51.
- 15) 할 포스터, 전영백과 현대미술연구팀 역 (2005). *욕망 죽음 그리고 아름다움*. 아트북스, p. 160.
- 16) 서세나 (2007). *한스 벨머(Hans Bellmer)의 인형 시리즈에 나타난 재구성된 신체 이미지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4.
- 17) 신학동 (2004). *페미니즘이 현대 패션사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4.
- 18) 김지현 (2003). *여성의 몸 -그 파편화된 이미지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3.
- 19) *위의 책*, pp. 13-14.
- 20) *위의 책*, p. 29.
- 21) 정연심 역 (2001). *앞의 책*, p. 84.
- 22) Donna Haraway (1992). *A Manifesto for Cyborgs: Science, Technology, and Socialist Feminism in 1980's* in Linda J. Nicholson, ed., *Feminism/Postmodernism*. Routledge, pp. 190-233.
- 23) 다니 헤러웨이, 임옥희 (1995). *사이보그를 위한 선언문-1980년대에 있어서 과학, 테크놀로지, 그리고 사회주의 페미니즘*. *문화과학*, 8, pp. 74-99.
- 24) 윤영, 양숙희 (2004). *앞의 책*, pp. 83-95.
- 25) 김원방 (1998). *잔혹극 속의 현대미술-몸과 권력사이에서*. 서울: 예경, p. 85.
- 26) 윤영, 양숙희, *앞의 책*, p. 90.
- 27) 서세나. *앞의 책*, pp. 32-33.
- 28) 남후남 (2005). *패션디자인에 표현된 브레스트의 조형성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20.
- 29) 김현수, 양숙희 (2003). *디지털시대 패션에 나타난 사이버페미니즘 연구-사이버 하위문화 스타일을 중심으로 (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7(11), pp. 1229-1240.
- 30) 차은진, 박미령. *앞의 책*, p. 23.
- 31) 전영백과 현대미술연구팀 역 (2005). *앞의 책*, p. 38.
- 32) 김홍희 (1998). *페미니즘, 비디오, 미술*. 서울: 재원, p. 228.
- 33) 차은진, 박미령. *앞의 책*, p. 21
- 34) 김현수, 양숙희 (2004). *디지털시대 패션에 나타난 사이버페미니즘 연구(제2보)-미적가치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8(2), p. 19.